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고 영 진*

目 次

1. 머리말
2. 호남의 학맥 형성
3. 이황과 호남사림의 학문교류
4. 호남의 이황문인
5. 맺음말

1. 머리말

‘영남’과 ‘호남’이라는 말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불린 것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다. 이 시기는 재지 중소지주로서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사람이 향촌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남과 호남이라는 별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행정 단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

조선시대 영남과 호남의 정체성을 형성한 주체는 ‘영남사림’과 ‘호남사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호남사림은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라 기호사림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도 경기·충청지방의 주변부로서 이해되고 독자적인 기반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 광주대학교 교양교육과정학부 교수

1) 고영진,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사회연구』 창간호, 2000

해는 정치·사상계가 경기·충청지방의 서인과 영남지방의 남인으로 재편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타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이전 시기에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16세기 호남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학파를 이루며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선조 초년에는 중앙 정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²⁾

호남사람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 즉 전라도를 기반으로 중종대에 성립되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의 사화 등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사대부 가문의 후예들로 연산군대에 서서히 등장하여 중종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흥기하였다.³⁾

그 과정에서 호남사람은 영남사람과 정치적·학문적으로 적지 않은 교류를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결국 선조대에 가면 영남과 호남은 인재의 府庫로서 조정에 등용된 자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융성하였다.⁴⁾ 이 글은 바로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를 16세기 사람문화 융성기에 영남과 호남사람의 학문 교류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 호남의 학맥 형성

조선시대 호남의 학맥 형성은 호남사람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 2) 조원래, 「16세기 초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금호문화』 89-2, 1989
이해준, 「己卯土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1991
- 3) 물론 장성의 劉敏(강릉 유씨)과 金英烈(의성 김씨) 등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공신에 봉해진 집안들도 있다.(고영진, 「장성의 유교유적」, 『장성의 문화유적』, 광주광역시·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 4) 후대에 가면 선조대 조정에 등용된 자의 반수가 영남과 호남사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효종실록』 권4, 1년 5월 辛未 ; 『현종실록』 권3, 1년 11월 壬戌; 『숙종실록』 권37, 28년 8월 庚寅)

가지며 전개되었다.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대 사화 등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호남지역에 뿌리를 내린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⁵⁾

1) 왕조교체기

范世東(금성 범씨) : 광주 출신. 간의대부 등 역임. 두문동에 은둔. 『華海師全』과 『話東人物叢記』 저술.

鄭地(하동 정씨) : 나주 출신.海道원수 등 역임. 왜구 토벌.

全新民(천안 전씨) : 병부상서 등 역임. 두문동에 은둔. 무등산 북쪽 산음동에 은거. 獨守亭을 지음.

趙瑜(옥천 조씨) : 진농시부정 등 역임. 순창에 은거.

金子進(광산 김씨) : 영암에 은거. 이후 후손들이 장성에 거주. 후손 김조원이 悠悠亭을 지어 기림.

金穩(울산 김씨) : 개국원종공신. 밀양부사 등 역임. 부인이 태종의 처족. 만년에 장성에 은거.

2) 세조의 쿠데타

金宗瑞(순천 김씨) : 좌의정 등 역임. 수양대군에게 피살. 김효우 등 후손들이 해남과 순천에 은거.

鄭笨(진주 정씨) : 우의정 등 역임. 장흥에 유배되어 죽음. 후손들이 장흥과 함평에 은거.

文孟和(남평 문씨) : 영암에 은거.

朴智興(충주 박씨) : 광산에 은거.

朴益卿(무안 박씨) : 무안에 은거.

金麟(충주 김씨) : 좌찬성 등 역임. 장흥에 은거.

金璉(영광 김씨) : 사인 등 역임. 장흥에 은거.

李岸(함평 이씨) : 남부참봉 등 역임. 함평에 은거.

崔德之(전주 최씨) : 직제학 등 역임. 만년에 영암에 은거.

宋侃(여산 송씨) : 형조참판 등 역임. 고흥에 은거.

申末舟(고령 신씨) : 신숙주의 동생. 병조판서 등 역임. 순창에 은거.

李碩(경주 이씨) : 나주에 은거.

5)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28-30), 전라남도, 1996 ; 이상식·오종일, 『義鄉』 광주광역시교육청, 42-66쪽. 1997

魯宗周(합평 노씨) :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다가 체포됨. 탈출하여 영암에 은거.

车恂(합평 모씨) : 후손들이 합평과 무안에 은거.

원주 李氏 : 해남에 은거.

문화 柳氏 : 담양에 은거.

홍주 宋氏 : 담양에 은거.

양성 李氏 : 합평에 은거.

3) 연산군의 사화

崔溥(탐진 최씨) : 나주 출신. 교리 등 역임. 중국에 표류. 『漂海錄』 저술. 무오사화 때 유배. 갑자사화 때 처형당함.

宋欽(신평 송씨) : 장성 출신. 이조판서 등 역임. 연산군 때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

李在仁(경주 이씨) : 이제현 후손. 장수현감 등 역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관직을 그만두고 장성에 은거.

鄭汝諧(하동 정씨) : 무호사화가 일어나자 화순에 은거.

申潤輔(고령 신씨) : 해주목사 등 역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순천에 은거.

호남사림은 중종반정 이후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조광조를 중심으로한 기묘사림의 세력 확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당시 호남사림은 기묘사림의 12%를 점하였다.⁶⁾ 또한 해마다 문과와 사마시에 다수의 합격자를 냈으며,⁷⁾ 1512년(중종 7) 소세양의 昭陵復位 주장과 1515년 박상·김정 등의 愼妃復位疏에서 볼 수 있듯이 훈척에 대한

6) 李秉然,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 일조각, 1984, 105쪽.

7) 1514년 별시문과에서 유성춘·남주·기준·안치순·박수량 등이 합격하였으며 1516년 식년문과에는 윤구·양팽손·이영부·기형·정만중 등이 합격하였다. 또한 1513년 사마시에서는 생원·진사 합격자 각각 10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각각 23명, 24명을 차지하였다. 장원급제자도 박우(1507년 진사시), 유옥(1507년 식년문과), 박상(1526년 문과중시), 나세찬(1536년 문과중시), 이만영(1538년 별시문과), 양응정(1540년 생원시, 1556년 문과중시), 정엄(1552년 생원시), 박순(1553년 식년문과), 고경명(1558년 식년문과), 정철(1562년 별시문과), 이발(1573년 알성문과), 정상(1574년 별시문과) 등 다수였다.(趙浚來,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1995)

하여 사림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기묘·을사사화와 그 이후의 고변사건으로 인해 김식·최산·두·양팽손·박상·고운·윤구·유운·유성춘·임형수·유희춘·송순 등 많은 인물들이 유배나 파직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호남사람은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당시 호남사람의 인맥을 보면 크게 여섯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

1) 김굉필계열

金宏弼→崔山斗·柳桂隣·尹信·崔忠成·柳孟權→金麟厚·柳成春·柳希春

2) 최보계열

崔溥→尹孝貞·林遇利·柳桂隣→尹衢·尹巷·尹行·尹復·柳成春·柳希春→李仲虎

3) 송흠계열

宋欽→梁彭孫·羅世纘·宋純·安處誠→梁應鼎·金麟厚

4) 박상계열

朴祥→宋純·林億齡·鄭萬鍾·蔡仲吉·朴淳

5) 이항계열

李恒→金千鎰·奇孝諫·金齊閔·白光弘

6) 김안국계열

金安國→金麟厚·柳希春

명종대에 이르면 이미 서경덕과 이항·조식학파가 형성되면서 호남사

8) 조원래, 「16세기 초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근호문화』 89-2, 1989
이해준, 「己卯土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1991

림 역시 이러한 학문 경향의 영향을 받거나 대응하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인택에 학맥을 더하여 고려한다면 호남사림은 크게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

서경덕계열에는 서경덕 문인이었던 박순과 정개칭, 그리고 노수신·윤행·윤의중·박응남·유희춘등이 활약했는데, 주로 최보계열이 여기에 속하였다. 송순계열에는 송순·김인후·나세찬·임형수·임억령·양산보·양응정·오겸 등이 활약했는데, 대체로 최보계열을 제외한 김광필·송흙·박상·이항계열이 여기에 속하였다.

서경덕과 송순 양 계열은 명종 말부터 서서히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다가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 노수신·유희춘·김난상 등이 乙巳被禍人으로서 복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중앙정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¹⁰⁾ 박순·윤의중·박응남과 유희춘·기대승·이후백·오겸·송순 등 선조 초에 고위관료로서 활약했던 인물 중의 상당수가 서경덕·송순계열의 호남사림이었던 것이다. 즉 사림들의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시키는 방법의 하나였던 경연을 주도한 것은 유희춘과 기대승이었고 정치적으로 홍담·김개 등 舊臣들과 대립하면서 사림정치를 정착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은 을사복관인인 노수신과 박순이었으며, 여기에 오겸과 송순 등이 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575년(선조 8) 동서분당을 계기로 중앙정계가 동인과 서인, 서경덕·이황·조식학과와 이이·성혼학과로 정치적·학문적으로 양분되면서 호남사림도 서경덕계열은 동인으로, 송순계열은 대부분 서인이 되어 중앙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서로 대립하였다. 당시 서경덕계열의 중심 인물은 이발·이길 형제와 정개칭 등이었으며, 송순계열의 중심 인물은 정철·고경명·김천일·이후백 등이었다.

9) 高英津,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南冥學研究』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10) 金宇基, 「16세기 湖南士林의 중앙정계 진출과 활동」,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刊行委員會, 2000

특히 이발이 동인의 영수로 활약하고 정개청이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등 서경덕계열은 송순계열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를 계기로 몰락하고 정철을 중심으로 한 송순계열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호남사회를 이끌어갈 학문적 중심 인물들이 임진왜란으로 많이 죽고 인조반정을 경기·충청도지방 서인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서인의 학문이 이이 이후 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고 이이학파의 적통이 호서사립으로 계승되면서 시가·문학활동에 경도되었던 호남사립의 학문적 기반은 점점 약화되어 갔다.

3. 이황과 호남사립의 학문교류

영남과 호남의 학문적 교류는 이미 이황 이전부터 지방관 역임, 유배, 교제·서신 등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다. 호남 유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과 김광필이었다.

15세기 말 성종대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영남사립의 종장이었던 김종직은 길재의 문인이었던 김숙자의 아들로 그의 집안은 父鄉인 선산과 母鄉인 밀양을 재지적 기반으로 한 영남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이었다. 그를 위시한 신진사류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훈척의 비리와 전횡을 비판하고 당시 사회의 모순을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였다.¹¹⁾

김종직이 호남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유향소북립운동을 전개하던 시기 중인 1487년 6월부터 1488년 5월까지 전라도관찰사와 전주부윤을 역임하면서였다. 당시 호남지방은 淫祀가 성행했었는데 김종직이 부임하여 畝邑을 순행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고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시행하

11) 李泰鎮,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상·하), 『震檀學報』 34·35, 1972·1973

려고 했던 것이다.¹²⁾ 실제로 전주에서는 1488년 3월 3일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시행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¹³⁾

광주 무등산에 올라 시를 읊기도 했던¹⁴⁾ 김종직이 호남사람과 교류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나주 출신의 최보가 그의 문인록에 올라 있다.¹⁵⁾ 최보는 1477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신종호·김굉필등과 교유하였으며, 1482년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직 등 관직을 역임하고, 『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87년 제주도에 추쇄경차관으로 갔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였다가 반 년 만에 귀국하여 『漂海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무오사화 때 스승인 김종직의 문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통나 단천에 유배되었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처형되었다.

그가 언제 김종직의 문인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으나 한때 그의 처향인 해남에 거주하면서 사위인 유계린을 비롯하여 윤효정·임우리 등을 가르쳐 김종직의 학문이 호남지역에 전해지는 데 기여하였다.¹⁶⁾ 학문적으로 호남사람과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김굉필이었다. 김굉필은 정여창·김일손과 함께 김종직의 3대 제자로 그의 집안은 현풍과 합천·성주 등지에 재지적 기반을 가진 사족이었다.

그는 김종직 문하에 들어가 『소학』을 배웠으며 이를 계기로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 ‘小學童子’라 칭하며 평생을 『소학』의 실천과 보급에 힘썼다.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칙불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1494년 천거로 남부참봉에 임명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

12) 『佔畢齋集』, 「年譜」, 成宗 18年條.

13) 『佔畢齋集』, 詩集 권22, 「全州三月三日行鄉飲鄉射禮」.

14) 『佔畢齋集』, 권21, 「光州無等山」.

15) 『佔畢齋集』, 「門人錄」.

16)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 출판부, 1999 에서는 호남의 김종직 문인으로 나주의 崔溥와 柳軒·羅允明, 광주의 朴禎·崔亨漢·崔雲漢·表浴沫, 능주의 鄭汝諧, 진안의 宋寶山·金機, 고창의 曹秀文, 전주의 李繼孟·李瓊同·林士壽·柳仁洪, 창평의 曹浩, 부안의 曹偉·朴論問, 해남의 李龜, 함평의 李摺 등을 들고 있다.

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으며, 이 때 조광조가 찾아와 성리학을 배우기도 했다. 1500년 유배지가 순천으로 옮겨졌으며,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처형당하였다.¹⁷⁾

김굉필이 호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순천에 귀양와서 죽기까지 4년 동안 지내면서였다. 이 때 최산두와 유계린, 최성춘·이적·윤신·유맹권·장자강 등이 그에게서 학문을 배웠다.¹⁸⁾ 기묘명현인 최산두는 광양 출신으로 김굉필에게 수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조광조·김정·김안국·김식 등과 교유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洛中君子會’라 일컬었다. 1504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학명을 떨치자 김인후와 유희춘 등이 찾아와 배웠다. 1513년 문과에 합격한 뒤 계속 관직을 역임하다가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동북으로 유배되어 14만에 풀려났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유성춘·윤구와 함께 ‘湖南三傑’로, 또한 조광조·양팽손·기준과 함께 ‘己卯四學士’로 일컬어졌다.¹⁹⁾

유계린은 김굉필 뿐만 아니라 장인인 최보에게도 학문을 배웠으며 이를 자신의 아들인 유성춘과 유희춘에게 전해주었다. 경전에 박식하였고 30세 이후에는 두문불출하고 향촌의 자제를 가르치는 데에 힘썼다. 『眉巖集』에 수록되어 있는 「庭訓」은 바로 유희춘이 부친의 언행과 가르침을 정리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결국 김굉필의 학문은 최산두와 유계린을 거쳐 김인후·유성춘·유희춘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문인들에게 전해져 호남사람의 학맥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²¹⁾

17) 『景賢錄』 권1, 「行狀」.

18) 박준규, 1999 앞의 글에서는 호남의 김굉필 문인으로 광양의 崔山斗, 순천의 張自綱·柳孟權, 광주의 李勣·尹信, 영암의 崔忠成, 임실의 李洙, 익산의 李若水, 해남의 柳桂隣, 남원의 吳梁孫·李延慶·具斗南, 전주의 李昌壽 등을 들고 있다.

19) 『新齋先生實紀』 권3, 「祭新齋先生文」; 박래호, 「최산두의 『新齋集』」, 『근호문화』 91-3, 1991

20) 『眉巖集』 권3, 「城隱先生碣陰」; 권4, 「庭訓」

21) 趙浚來, 「土禍期 호남사람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1995

이 두 사람 외에 호남성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이황이었다. 예안에 재지적 기반을 둔 영남의 대표적인 사족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호남사람과 학문적 교류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립해 나갔으며 이는 호남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그는 송순의 면앙정시단에 참여하여 「附退溪次韻」, 「次俛仰亭韻」 등의 시를 남겼으며,²²⁾ 김인후와도 시를 주고 받는²³⁾ 등 문학적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이황은 1527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했으며 1533년 생원시에 합격해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와 교유하였다.²⁴⁾ 당시는 기묘사화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士氣가 떨어지고 도학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는데, 두 사람이 한번 보고 뜻이 맞아 끊임없이 토론하고 닦아 소득이 있었다고 한다.²⁵⁾

이황이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것은 1543년 『朱子大全』을 입수하여 공부하면서부터였고 자신의 이론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계상·도산서당에 은거하면서 저술활동과 제자교육에 힘쓴 50대부터였다. 1553년 정지운의 「天命圖說」을 개정하고 後序를 붙였으며 이듬해 노수신의 「숙흥아매잠주해」에 대해 논술하였다. 1557년 『易學啓蒙傳疑』를 완성하고 이듬해에는 『주자서절요』와 『자성록』을 거의 완성하였다.

그리고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 기대승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논쟁인 四端七情論爭을 벌였다. 여기서 이황은,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그것에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그것에 타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하여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리와 기에 分屬시키고 사단은 純善無惡

22) 『俛仰集』 권2, 「附退溪次韻」; 권7, 附錄 「次俛仰亭韻」.

23) 『河西集』 권2, 「敬呈豐基先生 退溪任豐基時」; 권3, 「敬次陶翁李先生滉韻示虎兒」; 권4, 「次退溪翁郡齋移竹之韻」; 권5, 「見退溪詩因和韻」; 권8, 「次退溪韻」; 권10, 「次退溪韻」; 附錄 권2, 「送金厚之修撰乞暇歸親仍請外補養親恩許之行」; 附錄 권2, 「與河西門人下成溫」.

24) 『退溪集』 「年譜」 권1.

25) 『河西集』 附錄 권3, 「年譜」.

한 것으로, 칠정은 有善有惡한 것으로 본 것이다. 나아가 그는 리가 발한다고 하여 리의 능동성·자발성을 강조하였다.²⁶⁾

이에 반해 기대승은,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마찬가지로 리와 기도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天理의 발현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의 작용에 달려 있다고 하여 리의 자발성을 부정하였다.²⁷⁾ 이 논쟁은 뚜렷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지만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어 송순도 1570년 이황과의 편지를 통해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고 氣發理乘說을 주장하였다.²⁸⁾ 말하자면 이이가 1572년 성훈과 이기심성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학설을 체계화시키기 이전에 호남사람의 송순계열에서 이미 이이의 氣發理乘一途說과 비슷한 사상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²⁹⁾ 유희춘도 이황과 『語錄解』를 같이 편찬하였으며 이등교육서인 『續蒙求分註』를 보내 교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였다.³⁰⁾ 16세기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이황을 비롯한 영남사람과의 학문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³¹⁾

26) 『退溪集』 권16,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一書」,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27)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 『高峯全集』, 「高峯答退溪四端七情書」.

28) 『俛仰集』續集 권2, 「與李景浩書」.

29) 劉明鍾, 「俛仰亭 宋純의 性理思想」,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30) 李成任,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80, 1995

31) 김종직·김광필과 이황 외에도 노진과 노수신 등이 호남사람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노진은 전주부윤, 담양부사 등 호남지역의 지방관을 5년 이상 역임하면서 호남사람들과 교류하였으며 노수신은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호남지역에 귀양와 19년 동안 있으면서 호남에서 서경덕계열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다.(『玉

4. 호남의 이황문인

이황이 호남사람들과 학문 교류를 활발히 하는 동안 그 문하에 들어가 문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황의 문인록인 『陶山及門諸賢錄』에는 담양의 柳希春, 나주의 朴淳, 보성의 朴光前, 광주의 奇大升, 장흥의 文緯世, 무장의 卞成溫·卞成振, 해남의 尹剛中·尹欽中·尹端中, 창평의 梁子徵, 순천의 金允明, 화순의 曹大中 등 모두 13명의 호남사람이 등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희춘(1513-1577)

이황과 왕복서한이 있음. 『언행록』에 손수 기록한 것이 3조.

2. 박순(1523-1589)

처음에 서경덕에게 배우고 중년에 이황을 師事함. 출처에 관해 이황과 토론. 이황이 박순에게 답한 시와 박순이 이황을 위해 지은 挽詩 수록.

3. 박광전(1526-1597)

41세 때 執贖하고 도산으로 찾아감. 돌아올 때 이황이 『朱子書節要』 초간본 8책과 5편의 詩를 줌. 왕복질의가 있음. 이황이 박광전에게 답한 편지와 5편의 시 수록.

4. 기대승(1527-1572)

22세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황에게 나아가 질정을 받고 전후하여 사단칠정논변을 벌임. 이황의 묘지문과 묘갈문을 씀. 『언행록』 관련 구절과 편지, 기대승이 이황을 위해 지은 제문 수록.

5. 문위세(1534-1600)

일찍이 유희춘을 배알하고 13세에 이황 문하에서 배움. 윤구가 이황을 배알하여 문위세를 소개하고 권하여 보냄. 머무르면서 수학하기를 수년 동안 하였으며 朱子書에 관해 강론함. 『언행록』 관련 구절 수록.

6. 변성온(1530-1614)

일찍이 김인후의 문하에 유학하고 다시 이황에게 왕래하면서 의심스러운 곳을 물음. 이황이 쓴 시 수록.

7. 변성진(1549-1623)

변성온의 동생. 처음에 김인후에게 배웠으며 이황 문하를 왕래하면서 경서의 뜻을 익히고 물음.

8. 윤강중(1545-1627)

아우 윤흡중, 윤단중, 외사촌 형 문위세와 함께 이황에게 가르침을 받음. 수 개월 뒤 돌아갈 때 이황이 지어준 시 수록.

9. 윤흡중(1547-?)

윤강중의 동생. 이황이 답한 편지 수록.

10. 윤단중(1550-1608)

윤흡중의 동생. 1566년 이황에게 수업함.

11. 양자징(1529-1593)

처음에 김인후에게 사사하였으며 이황에게 나아가 배워서 장려와 인정을 받음.

12. 김윤명(1541-1572)

金尹欽이라고도 함. 관련 기록이 없음.

13. 조대중(1549-1590)

처음에 유희춘 문하에서 배움. 이황을 서울집에서 배알하고 顏子의 克己 復禮 및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대해 강론했는데 변론이 절실하고 타당함.

이들 가운데는 이황의 문인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교류를 하는 관계이거나 아예 자신의 문집에는 관련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희춘과 기대승이 전자의 경우이고 박순이 후자의 경우이다. 박순의 문집에는 이황과의 학문 수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한편 이황의 문인록 역시 1854년 『도산급문제현록』를 간행하기 전까지 여러 번 중간을 거치면서 수록 인물들이 점차 늘어나 호남의 이황 문인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황의 6대손인 이수연이 지은 『陶山淵源錄』에는 박순·박광전·기대승·문위세·변성진·윤강중·윤흠중 등 7명이다.³²⁾ 이를 볼 때 호남지역에서의 이황 문인은 박광전·문위세·변성온·변성진·윤강중·윤흠중·윤단중·양자징·김운명·조대중 등 1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³³⁾

이들의 학맥과 학문을 살펴보면, 박광전은 9세 때 홍양현에 유배와 있던 洪暹을 찾아가 수업했으며 22세 때는 양응정에게 수학하였다. 이미 12세 때 『성리대전』을 구해 탐독할 정도로 학문에 힘썼으며, 32세 때 竹川가에 정자를 짓고 爲己之學에 힘썼으며, 33세 때는 문인 宣廷達이 楚辭를 배우고자 하였다. 41세 때인 1566년 이황 문하에 執贖하였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갈 때 이황은 『주자서절요』 1질과 시 5편을 주며 이단의 학문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주자서절요』를 연구하고 이황과 질의한 내용을 1권으로 묶어 내어 많은 문사들이 배껴 유포시켰다.³⁴⁾

1568년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70년 유희춘이 조정에 천거하여 이듬해 경기전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1572년 헌릉참봉을 지냈다. 1581년에는 왕자 사부에 임명되었으며 시헌부 감찰, 함열현감, 회덕현감 등을 역임한 뒤 1589년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성의

32) 『楓菴文先生實記』 권6 「陶山淵源錄」

33)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자의 범위」, 『韓國의 哲學』 26, 1998 에서는 이황의 문인들을, 이황과 얼마나 긴밀한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세 부류로 나누고 受業, 受學, 師事 등 확실한 학문적 전수관계라고 할 수 있는 A유형에 호남의 경우 박광전, 문위세, 윤강중, 윤흠중, 윤단중, 양자징 등 6명을 선정하였다.

34) 『竹川集』 권3 「上退溪先生問目 朱子書節要疑義」; 권3 「上退溪先生」

임계영, 장흥의 문위세, 능성의 김익복 등과 함께 ‘전라좌의병’을 일으키고 전주에 있던 광해군에게 전란 극복을 위한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³⁵⁾ 1593년 익위사 익위에 임명되었으며 1597년 다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다 죽었다. 문인으로는 安邦俊과 宣仁厚·宣廷達·安重默·權克悌·鄭喆·金成章·李允男·朴光先·鄭思悌 등이 있다.³⁶⁾

박광전의 사상적 특성은 이기론 등을 논한 글들이 거의 없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주자서절요』에 관해 이황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그가 쓴 賦와 雜著의 글들을 보면, 敬을 중시하고 心學的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황의 학문적 특성을 충실히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황학맥에서의 박광전의 위치는 『典故大方』이나 『朝鮮儒賢淵源圖』에서 박광전을 정구·김성일·유성룡과 함께 이황의 학통을 이은 네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박광전은 의병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실천에도 적극적이었다. 안방준은 「행장」에서 호남에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은 김인후·기대승·이항·유희춘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박광전 뿐이라며 다섯 사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오호라. 우리 호남은 본래 문헌의 고향이라 하나 고려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은 오직 김인후·기대승·이항·유희춘 그리고 나의 스승이 있을 뿐이다. 김인후의 학문 操行과 절의 문장은 탁월하여 미칠 수 없고 기대승의 이론적인 명쾌함과 이항의 강력하고 굽히지 않음, 유희춘의 박식하고 전문이 넓은 역시 세상에서 보기 드문 바이나 그 실천의 독실함에 있어서는 저 세 분이 우리 선생과 더불어 누가 더 나은지 알 수 없다.³⁸⁾

35) 『竹川集』 권2, 「上 王世子撫軍時書」

36) 『竹川集』 권6, 부록 「年譜」; 권9, 부록 「諸家 記述」

37) 劉明鐘, 「竹川 朴光前의 生涯와 性理思想」

38) 『竹川集』 권7, 부록 「行狀」

문위세는 박광전의 처남으로 9세 때 외숙부인 尹衢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11세 때 유희춘 문하에 나아가 경서와 어록의 어려운 내용에 대해 질문해 유희춘이 장차 유학의 큰 선비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13세 때 이황이 윤구에게 호남의 인물을 묻자 윤구는 문위세를 추천하였다. 이황도 한번 만나보고자 해 14세 때 1547년 도산에 유학하였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25세 때인 1558년 다시 도산에 가서 수학하다 1564년 돌아왔다. 1560년에는 이황이 八陳圖에 대해 언급하고 그 圖說을 옮겨 배끼게 하였으며 1561년에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정구와 더불어 禮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1565년 외숙부인 윤구가 안동부사로 부임하는 행차를 따라가 이황을 뵈었으며 이듬해 외사촌 윤강중·윤흥중과 함께 다시 이황을 찾아 뵈고 『朱子全書』에 대해 질문하였다.

1567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75년 풍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제자 수십 명을 거느리고 거처하면서 학문 연구에 힘썼다. 1576년 유희춘이 호남순찰사가 되어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자형인 박광전군대, 임계영·김익복·최경희군대 등과 합쳐 활약하였다. 1593년 이항복의 추천으로 호남 運糧使에 임명되어 군량을 조달하였으며 1594년 박광전이 세자에게 상소를 올리며 제일 먼저 추천하여 이듬해 용담현령에 임명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양치에서 전주로 향하는 일본군을 대파해 북진을 막기도 하였다.³⁹⁾ 1600년 파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해 죽었다.

변성온은 김인후가 을사사화 이후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힘쓰자 제일 먼저 나아가 수학하였다. 김인후가 『소학』을 주자 변성온은 성인의 모범이 이 책에 있다면서 언행을 모두 『소학』에 근거하여 하였다. 성격이 온후하고 행동이 실수가 없어 동문인 기효간·양자징·조희문·이지남·윤기·남언기 등으로부터도 중망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호암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썼다. 1555년 이황을 배알하였으며

39) 『楓菴文先生實記』 권1, 「年譜」; 권4, 「行狀」

1560년 김인후가 죽자 역시 이황을 찾아 뵙고 김인후의 무릉구곡 시를 낭송하기도 하였다. 이어 기대승·성혼·박순 등과 교류하였다. 당시 정여립이 이름을 날려 사대부들이 모두 다투어 몰려 들었으나 만나보지 않았으며 정여립이 만나려고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의 변성온과 변성진의 기록에는 관련 사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⁴⁰⁾

변성진은 변성온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김인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황 문하에도 왕래하면서 경전에 대해 강론하였다. 명종 말에 사특함과 올바름을 구분하여 이치를 밝히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선조대에도 天命과 人心의 오고 가는 나누임과 군자·소인의 진퇴의 기미, 궁중 일의 엄하지 않음과 戚里들의 진중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려 선조가 가상하게 여겨 답하고 참봉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정여립이 만나보려고 청하였으나 형과 마찬가지로 거절하였다. 평소 행동하는데 있어 오로지 『소학』과 『주자가례』를 법으로 삼았으며 역학에 특히 능하였다. 『家禮解疑』와 이황·김인후 양선생과 왕복한 서한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불타버렸다.⁴¹⁾

윤강중과 윤희중, 윤단중은 尹復의 아들이다. 윤복은 최보의 문인인 윤희정의 아들로 윤구의 동생이기도 하다. 큰형인 윤구에게서 『통사』등을 배웠으며 1538년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하였다. 1566년 아들과 조카인 문위세를 이황에게 보내어 유학하게 하였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이황이 시를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⁴²⁾ 윤단중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성천지부대에 참여하였으며 이어 전라도관찰사가 호남의 소금 운반 책임을 맡겨 백진남과 함께 수행하였다. 복수의병장 고종후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여산까지 가기도 하였다.⁴³⁾

양자정은 소쇄원 주인 양산보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학』 공부

40) 『淸溪世稿』 권2, 壺巖公「墓表」, 「墓碣銘」

41) 『淸溪世稿』 권2, 仁川公「實記」

42) 『楓菴文先生實記』 권2, 「杏堂尹公行狀」

43) 『陶山及門諸賢錄』 권4, 「尹端中」

를 철저히 하여 실천하였으며 열 대여섯이 될 즈음 모든 경서와 사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김인후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황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이와 성혼에게서 강의를 받았다. 선조대 정종영·박순 등이 천거하여 관직에 나아가 의영고 직장, 거창현감, 석성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양천경과 양천회가 기축옥사의 고변자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양천운을 시켜 약간의 금전과 식량을 김천일과 고경명부대에 실어 보내기도 하였다.⁴⁴⁾

조대중은 일찍이 유희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인심·도심과 천리·인육의 분수를 정의와 주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 유희춘이 칭찬하기도 하였다. 1576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성균관에 있을 때 이황을 배알하고 안자의 극기복례 및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대해서 강론하였는데 변론이 모두 절실하고 타당하여 이황 역시 박순에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조대중이 진실로 통달한 선비이다”라고 하였다. 평소에 성품이 강직하여 정철이 주색에 빠져 예를 멸시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에 붙는다고 비판하여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 1582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한 뒤 승문원 부정자,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형조좌랑, 평안도 도사 등을 역임하였다.⁴⁵⁾ 정치적으로 동인의 입장이었으나 정여립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자신 뿐만 아니라 형인 조민중, 조카인 조수훈·조수성·조수홍, 아들인 조수흠·조수경 등 집안이 모두 연루되어 잡혀가 옥사하였다.⁴⁶⁾

이들을 인맥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김광필계열과 최보계열, 특히 유희춘·김인후와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위세와 조대중은 유희춘에게 수학하였으며 박광전은 유희춘의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 변성은과 변성진·양자정은 김인후 문하에 들어갔는데 김인후는 유희춘과 사돈

44) 『宋子大全』 권206, 「鼓巖梁公行狀」

45) 『鼎谷遺集』 권2, 부록 「年譜」; 권4, 부록 「事實」

46)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研究』 7, 1977

간인 동시에 김안국과 최산두의 문인이기도 하다. 박광전과 문위세는 처남 매부간이며 윤강중과 윤희중·윤단중은 문위세와 외사촌간이고 할아버지인 윤희정은 유희춘의 아버지인 유계린과 같이 최보의 문인이다. 유계린은 최보의 사위이기도 하다.

학맥으로는 문위세와 윤강중·윤희중·윤단중·조대중 등이 서경덕계열에 속하고 박광전과 변성온·변성진·양자징 등이 송순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계열에 속하든 16세기 후반까지는 이황의 학풍을 유지하다 16세기 말부터 본인이나 그 제자들이 서경덕이나 송순계열로 분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호남의 이황문인들은 이황이 학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한 유희춘과 김인후를 매개로 하여 이황의 문인이 되었으며 뒤에 학파와 정파가 분기되면서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이들의 학문적 내용을 살펴볼 자료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이단에 엄격하고 주자에 충실한 모습을 띠는 등 이황의 학문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김인후와 관련한 문인들은 정치적으로 서인이 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관계가 점차 멀어져가고 유희춘과 관련한 문인들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유사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 이황학맥의 호남전파를 이황의 호남문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호남에서의 사림 형성, 학맥 형성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호남사림은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의 사회 등의 정치적 변동을 계기로 형성되었는데 중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흥기하였다.

당시 호남사림의 인맥은 크게 김굉필·최보·송흙·박상·이항·김안국계열 등 여섯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명종대 서경덕과 이황·조식학파가 형성되면서 호남사림도 그 영향을 받거나 대응하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인맥에 학맥을 더하여 고려한다면 크게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황과 호남의 학문적 교류는 이미 이황 이전부터 지방관 역임, 유배, 교제·서신 등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으며 호남 유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과 김굉필이었다. 김종직은 지방관으로 와서, 김굉필은 귀양 와서 호남사림과 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문인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두 사람 외에 호남성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이황이었다. 그는 기대승·송순·유희춘 등과 학문적 교류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립해 나갔으며, 이는 호남사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그는 송순의 면앙정시단에 참여하는 등 문학적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이황이 호남사림들과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는 동안 그 문하에 들어간 문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금문제현록』에는 담양의 유희춘, 나주의 박순, 보성의 박광전, 광주의 기대승, 장흥의 문위세, 무장의 변성온·변성진, 해남의 윤강중·윤희중·윤단중, 창평의 양자징, 순천의 김윤명, 화순의 조대중 등 모두 13명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유희춘과 기대승은 대등한 관계에서 학문적으로 교류한 경우에 해당되고, 박순은 이황과의 학문적 수수관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들을 제외한 10명을 호남에서의 이황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들을 인맥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김굉필계열과 최보계열, 특히 유희춘·김인후와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위세와 조대중은 유희춘에게 수학하였으며 박광전은 유희춘의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 변성온과 변성진, 양자징은 김인후 문하에 들어갔는데 김인후는 유희춘과 사돈

간인 동시에 김안국과 최산두의 문인이기도 하다. 박광전과 문위세는 처남 매부간이고 윤강중과 윤희중, 윤단중은 문위세와 외사촌간이며 할아버지인 윤희정은 윤희춘의 아버지인 유계린과 같이 최보의 문인이다. 유계린은 최보의 사위이기도 하다.

학맥으로는 문위세와 윤강중, 윤희중, 윤단중, 조대중 등이 서경덕계열에 속하고 박광전과 변성온, 변성진, 양자징 등이 송순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계열에 속하든 16세기 후반까지는 이황의 학풍을 유지하다 16세기 말부터 본인이나 그 제자들이 서경덕이나 송순계열로 분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호남의 이황문인들은 이황이 학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한 윤희춘과 김인후를 매개로 하여 이황의 문인이 되었으며 뒤에 학파와 정파가 분기되면서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이들의 학문적 내용을 살펴볼 자료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이단에 엄격하고 주자에 충실한 모습을 띠는 등 이황의 학문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김인후와 관련한 문인들은 정치적으로 서인이 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관계가 점차 멀어져가고 윤희춘과 관련한 문인들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유사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어쨌든 16세기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이황을 비롯한 영남사림과의 학문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의 이황문인들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호남의 성리학이 분화·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金宗直, 『佑畢齋集』

金宏弼, 『景賢錄』

崔山斗, 『新齋先生實紀』

柳希春, 『眉巖集』

宋 純, 『侷仰集』

金麟厚, 『河西集』

李滉, 『退溪集』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奇大升, 『高峯全集』,

노 진, 『玉溪集』

盧守愼, 『蘇齋集』

文緯世, 『楓菴文先生實記』

『清溪世稿』 권2, 壺巖公 「墓表」, 「墓碣銘」

『清溪世稿』 권2, 仁川公 「實記」

『楓菴文先生實記』 권2, 「杏堂尹公行狀」

『陶山及門諸賢錄』 권4, 「尹端中」

『宋子大全』 권206, 「鼓巖梁公行狀」

『鼎谷遺集』 권2, 부록 「年譜」; 권4, 부록 「事實」

고영진,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사회연구』 창간호, 2000

조원래, 「16세기 초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금호문화』 89-2, 1989

이해준,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1991

고영진, 「장성의 유교유적」, 『장성의 문화유적』, 광주광역시·조선대학교
박물관, 1999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28-30), 전라남도, 1996
- 이상식·오종일, 『義鄉』, 광주광역시교육청, 1997
-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 일조각, 1984
- 趙浚來, 「土禍期 호남사람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1995
- 高英津, 「16세기 湖南士林的 활동과 학문」, 『南冥學研究』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 金宇基, 「16세기 湖南士林的 중앙정계 진출과 활동」,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刊行委員會, 2000
- 李泰鎭,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상·하), 『震檀學報』 34·35, 1972·1973
- 박준규, 「湖南詩壇의 人物과 그 특색」,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 출판부, 1999
- 박래호, 「최산두의 『新齋集』」, 『금호문화』 91-3, 1991
- 趙浚來, 「土禍期 호남사람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東洋學』 25, 1995
- 劉明鍾, 「俛仰亭 宋純의 性理思想」,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 李成任,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80, 1995
-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 『韓國의 哲學』 26,
- 劉明鍾, 「竹川 朴光前의 生涯와 性理思想」
-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的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研究』 7, 1977

Abstract

Spread of Yi Hwang academic stream to the Honam area and Its meaning in Confucianism history

Ko, Young-jin

This study has looked into the spread of Yi Hwang academic stream to Honam in view of study exchange between Youngnam and Honam area in the 16th century, when Sarim culture was in full flourish.

Honam Sarim was formed with political fluctuations such as Chosun establishment, King Sejo's coup d'état, and massacres of scholars by Yeonsangun, and was developed in earnest after King Jung-jong age. At that time, personal connection of Honam Sarim was classified into six parties of Kim Gwengpil, Choi Bo, Song Heum, Park Sang, Yi Hang, Kim Ahn-kook. While Seo Gyeong-duk, Yi Hwang, Cho Sik academic schools were formed in King Myeongjong age, Honam Sarim was affected and grew up corresponding to them. Therefore, considering personal and academic connections, the part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rties; Seo Gyeong-duk party and Song Soon party in large.

Academic exchange between Yi Hwang and Honam had already existed in various forms by consecutive entitlement of local officers, banishment, friendship and letter and representative persons who affected the formation of Honam Confucianism were Kim Jong-jik and Kim Gweng-pil. Kim, Jong-jik, who came as a local government officer, and Kim, Gweng-pil, who came for banishment, had a relationship with Honam Sarim and affected academy, producing not too few disciples.

Besides these two men, it was Yi Hwang who affected formation of Honams metaphysics and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He established his own theory through discussion and academic exchange with Gi Dae-seung, Song Soon, Yoo Hee-chun, and so did Honam Sarim. In addition, he exchanged culture actively such as participating at Song Soon's Myeon-ang-jeong literary organization.

While Yi Hwang was exchanging academy actively with Honam Sarim, some people became disciples under his studies. Yi's disciples were Park, Gwang-jeon from Bosung, Moon Wee-se from Jang-heung, Byeon Sung-on and Byeon Sung-jin from Moo-jang, Yoon Gang-jung, Yoon Heum-jung, and Yoon, Dan-jung from Haenam, Yang Ja-jing from Chang-pyeong, Kim Yoon-myeong from Soon-cheon, and Jo Dae-jung from Hwa-soon. Classified by personal connection, they are mainly connected with Kim Gweng-pil party and Choi Bo party. Especially they had lots of connection with Yoo Hee-chun and Kim In-hoo.

In conclusion, Yi's disciples in Honam became his disciples through the medium of Yoo Hee-chun and Kim In-hoo who had exchanged academy actively with Yi Hwang. They were divided again into Seo Gyeong-duk party and Song Soon party, and East men and West men as the academy party was divided into academy party and political party later. Initially, their academy was not so different from Yi Hwangs academic characteristic since it was strict to heresies and faithful to Juja. As it went to later ages, however, it's considered that disciples related to Kim In-hoo had lightened their academic relationship with Yi, Hwang as they became West men politically, but disciples related with Yoo Hee-chun kept academic similarity with Yi while they were acting as East men

Anyway, it can be said that Honam metaphysics was developed in various manners and was the best in its theory at that age due to the academic exchange with Youngnam Sarim including Yi Hwang. Besides, Yi's disciples in Honam area played a mediation role when Honam metaphysics was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from the late 16th to early 17th century.

Keyword

Yi Hwang, Yi Hwang academic stream, Honam Sarim, Seo Gyeong-duk party, Song Soon party, Park, Gwang-jeon, Study exchange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고영진

이 글은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를 16세기 사림문화 융성기에 영남과 호남사림의 학문 교류라는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호남사림은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의 사화 등의 정치적 변동을 계기로 형성되었는데 중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흥기하였다. 당시 호남사림의 인맥은 크게 김굉필, 최부, 송흠, 박상, 이황, 김안국계열 등 여섯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명종대 서경덕과 이황·조식학파가 형성되면서 호남사림도 그 영향을 받거나 대응하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인맥에 학맥을 더하여 고려한다면 크게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황과 호남의 학문적 교류는 이미 이황 이전부터 지방관 역임, 유배, 교제·서신 등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으며 호남 유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과 김굉필이었다. 김종직은 지방관으로 와서, 김굉필은 귀양 와서 호남사림과 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문인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두 사람 외에 호남성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이황이었다. 그는 기대승, 송순, 윤희춘 등과 학문적 교류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립해 나갔으며 이는 호남사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그는 송순의 면앙정시단에 참여하는 등 문학적 교류도 활발히 하였다.

이황이 호남사림들과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는 동안 그 문하에 들어간 문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황의 문인으로는 보성의 박광전, 장흥의 문위세, 무장의 변성온·변성진, 해남의 윤강중·윤홍중·윤단중, 창평의

양자징, 순천의 김윤명, 화순의 조대중 등이 있다. 이들을 인맥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김굉필계열과 최부계열, 특히 유희춘, 김인후와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호남의 이황 문인들은 이황이 학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한 유희춘과 김인후를 매개로 하여 이황의 문인이 되었으며 뒤에 학파와 정파가 분기되면서 서경덕계열과 송순계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이들의 학문은 초기에는 이단에 엄격하고 주자에 충실한 모습을 띠어 이황의 학문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김인후와 관련한 문인들은 정치적으로 서인이 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관계가 점차 멀어져가고 유희춘과 관련한 문인들은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이황과의 학문적 유사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어쨌든 16세기 호남의 성리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이황을 비롯한 영남사림과의 학문적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의 이황문인들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호남의 성리학이 분화·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이황, 이황학맥, 이황문인, 호남사림, 호남성리학, 학문교류, 서경덕계열, 송순계열, 박광전